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5월을 기다리는 이유: 북핵 협상(3)

■ 기업/산업분석

우리은행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매크로 포커스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코텍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기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 전략 | 박소연
해외 주식 | 백찬규
경제 분석 | 박정우

시황 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채권 분석 | 오창섭

계량 분석 | 안혁
중국 시장 | 최설화
크레딧분석 | 김기명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부쑤언토
해외채권 | 정영록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중
글로벌기업 | 김시우

5월을 기다리는 이유: 북핵 협상(3)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북핵 문제 해결에 강한 동기 부여
미국 정치권 내 의견 조율 과정은 불확실성, 그러나 방향성 바뀌지 않을 것
금융시장은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을 서서히 반영 중

1.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북핵 해결에 강한 동기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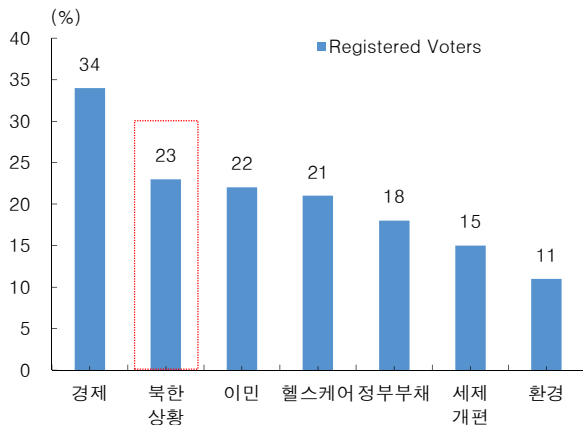
과거와 달리 남북한과 미국
모두 관계 개선에 적극적

시리아 추가 공습 우려가 잦아들면서 이번에는 대북 이슈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대감과 관망 심리가 교차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다. 시장에서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월 북한의 회담 제의를 승낙한 이후 회의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CIA 국장이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혀 양국이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회담 장소 후보지도 5곳으로 좁혀진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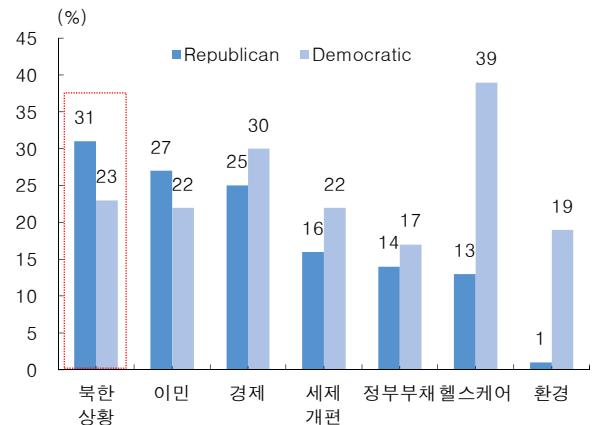
시장도 민첩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표 경협주로 여겨지는 현대건설이 18일과 19일 이틀간 20% 이상 급등했고 현대시멘트도 19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경제 협력력이 이번 남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협주들의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그림 1] 11월 중간선거 경협주 유권자 관심사: 북한 2위



자료: Kaiser Family Foundation (Jan 16-21),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공화당 유권자 관심사: 북한 1위



자료: Kaiser Family Foundation (Jan 16-21), 한국투자증권

**트럼프는 북한 이슈에 집중
해야 하는 확실한 동기 보유**

트럼프와 김정은은 모두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다. 특히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다. 시리아 분쟁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외교적 성과를 내려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성과를 남겨야 한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번 북한 이슈에도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이슈는 공화당 유권자
들의 주된 관심사**

실제로 공화당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 연초 Kaiser Family Foundation이 집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헬스케어였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의 주 관심사는 북한 문제, 이민, 경제순이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경합주로 여겨지는 지역의 유권자들도 북한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꼽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동기는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전 대통령들이 못한 것을 자신이 해내기 직전이라는 의미를 여러 번 내비쳤다. 지난 3월 28일에는 ‘과거 여러 행정부에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진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트윗했고, 올해 1월에도 ‘남북 간의 대화 재개는 자신의 성과’라는 입장을 표했다.

<표 1> 트럼프의 대북 관련 주요 발언 및 이벤트

(단위: %)

일자	발언 및 이벤트	지지율
2017-07-01	트위터: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41.7
2018-08-05	U.N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발표.	37.3
2017-08-08	북한은 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	38.3
2017-08-08	트럼프 발언: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38.3
2017-09-15	북한 미사일 발사	40.5
2017-09-19	트럼프의 U.N 연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40.4
2017-11-07	트럼프 방한: Come to the table and make a deal'	38.8
2017-11-20	9년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	39.1
2017-11-28	북한 미사일 시험	39.7
2018-01-02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표명. 미국 본토는 미사일 사정권 안	39.9
2018-01-03	트위터: 'My nuclear button is much more bigger and more powerful'	40.2
2018-01-10	백악관: 'U.S is open to talks with North Korea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40.9
2018-01-14	트위터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코멘트: 'Talks and dialogue would not be going on if I wasn't firm, strong and willing to commit'	40.7
2018-02-23	북한에 대해 새로운 경제제재 발표: 경제제제가 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	42.1
2018-03-06	트위터: 몇 년만에 처음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노력을 하는 모습. 미국은 양쪽 방향으로 갈 의지 충분(willing to go in either direction)	42.4
2018-03-06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핵포기를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힘	42.4
2018-03-08	북한의 회담 제안 승낙	41.9
2018-03-10	펜실베이니아의 연설: 회담 전까지 미사일 시험을 멈추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믿는다고 발언	42.0
2018-03-26	중북 정상회담	42.5
2018-04-08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	41.0
2018-04-16	폼페오 신임 외교장관 내정자가 지난주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왔다고 밝힘	42.5
2018-04-18	미일 정상회담: 회담이 생산적이지 못할 경우 회의장에서 퇴실 할 수도 있다고 발언. 또한 완전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최대 압력을 가할 것을 밝힘	41.7
2018-04-27	남북 정상회담	
2018-06	미북 정상회담	

자료: 한국투자증권

볼튼 보좌관의 매파적 성향,
폼페이오 국장의 국무장관
임명 과정, CVID 스탠스에
대한 수용 여부가 관건

물론 협상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CVID) 수용 여부다.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핵을 포기했지만 정권이 붕괴된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존 볼튼(John Bolton) 신임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의견 차이도 문제다. 특히 볼튼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다 이란에 대해서도 군사 개입을 선호하는 등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볼튼은 지금도 북한에 대해 매파적 스탠스다.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직후 북한과의 회담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회담은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벌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최대한 앞당겨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폼페이오 CIA 국장의 국무장관 임명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무장관 임명을 위한 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 중 한 명이 지지표를 주었지만 여전히 랜드 폴(Rand Paul) 상원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존 맥케인 의원은 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현재 찬성표 50개만 확보된 상황이다. 이탈표 출현에 취약한 상태다. 6월 초 정상회담까지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힐 경우 시장은 의외로 굴곡진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2. 투자전략: 금융시장은 긍정적 기대 반영, 우상향 기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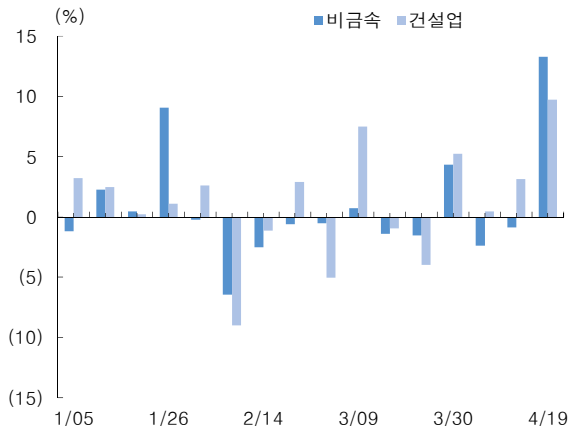
금융시장은 긍정적 기대
반영 중: CDS 프리미엄 등

그러나 금융시장은 의외로 우려보다는 긍정적 기대감을 반영 중이다. 우선 1) 작년 대북 리스크가 강화되며 확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올해 들어 소폭이지만 축소되고 있고 2) CDS 프리미엄도 최근 하락하는 추세다. 3) 환율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NDF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단기물 대비 장기물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율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볼튼 보좌관의 영향력과 북한의 CVID 수용 여부 등은 분명 회담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요소다. 하지만 트럼프는 현재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당장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표심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달 펜실베이니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둔데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정계 은퇴를 발표했다. 현재 추세로만 보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하나는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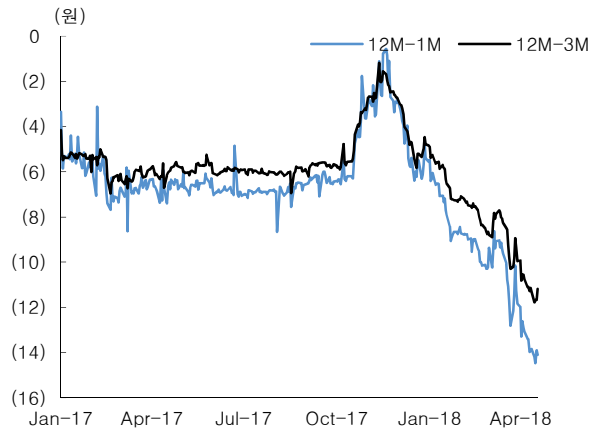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은 트럼프에게 이번 북핵 문제를 잘 풀어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를 제공한다. 중간중간 실망하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초까지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림 3] 주간 수익률 추이: 건설/비금속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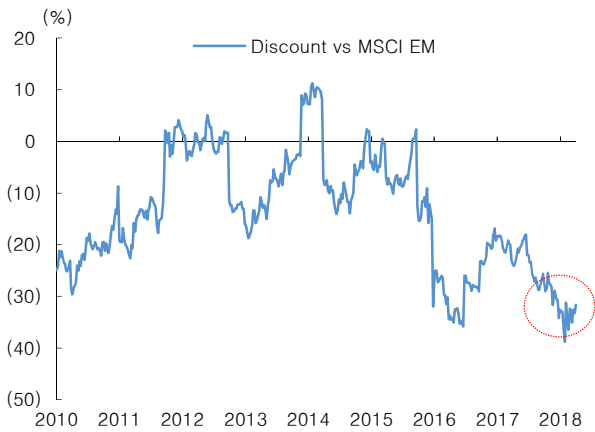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원달러 NDF 스프레드: 장기물 하락폭 확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MSCI Korea PER: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폭 축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한국 CDS 프리미엄 하락 중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타이거 펀드의 사례(금융, 유틸리티, 전선)

독일 통일에 투자한 타이거
펀드의 사례: 금융과 전선,
유틸리티 등

독일 통일을 투자에 적용한 사례로 줄리안 로버트슨이 이끌었던 타이거 펀드의 케이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타이거 펀드는 미국 내 주식 롱숏 전략에 거의 의존했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로버트슨은 “베를린의 장벽이 곧 무너진다. 이것은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독일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타이거 펀드는 독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었지만 독일 통일을 역사적 기회로 보고 독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타이거 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한 기업으로 도이치 은행, Veba, Felten & Guillaume 등을 꼽을 수 있다. 각각 금융, 유틸리티, 전선업체이다. 은행은 통일 후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동독 개발 과정에서 금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Veba는 동서독 국경에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었었는데, 동독 신흥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Felten & Guillaume은 전선 제조 업체로 동독 지역에 대한 전력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실제 Felten & Guillaume의 기업 이익은 1991년 이후 크게 늘어났고 주가도 1989~1991년까지 강세를 보였다.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펀드가 도이치 방크를 매수한 이유는 통일 과정에서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동독 개발 과정에서 금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자금을 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도이치 방크의 이익은 통일 후 1991~1993년 동안 연평균 23%씩 성장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성과는 의외로 좋지 않았다. 1989~1992년 동안 도이치 방크의 시가총액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가 발생해 전세계 금융산업에 대한 신용 위험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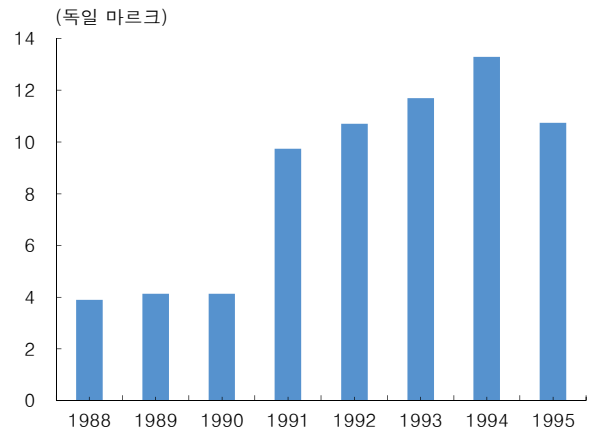
독일의 통일은 타이거 펀드가 해외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익과 투자 기간을 따져보면 완전히 성공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독일 통일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라 독일 기업들에 집중 투자했지만 여러 차례 독일 기업들을 방문한 이후 독일 주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비교할 때 유럽의 기업들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실망한 타이거 펀드는 독일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여나갔다.

[그림 7] Felten & Guillaume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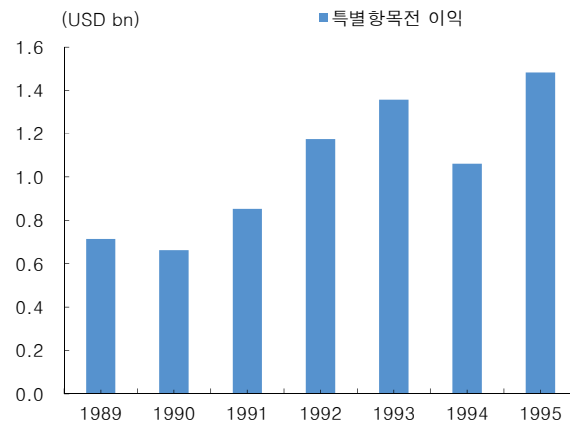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그림 8] Felten & Guillaume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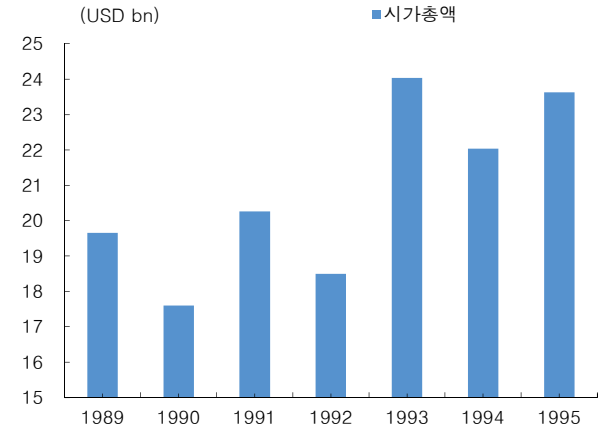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그림 9] 도이치 방크 세전이익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도이치 방크 시가총액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은행(000030)

하회 부합 **상회**

순이익의 컨센서스 대비를 의미

고르게 좋아진 이익

순이익 5,897억원으로 컨센서스 18% 상회
 NIM, 대출성장, 수수료이익, 대손율, 판관비 등 전 부문 지표 개선
 특히 수수료이익 증가와 대손율 하락은 인상적

Facts : 순이익은 컨센서스 18% 상회. 전반적 지표 고르게 개선

1분기 지배순이익은 5,897억원으로 컨센서스를 18%, 당사 추정치를 7% 상회했다. 특별한 일회성이 없었던 가운데 NIM, 대출성장, 수수료이익, 대손율, 판관비 등 전반적인 지표들이 고르게 좋았기 때문이다. 경상 수준이 기존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온 모습이다. 1분기 은행 NIM은 1.50%로 전분기대비 3bp 개선됐다. 대출금리 리프라이싱과 수익성 위주 대출성장 전략에 따라 원화 NIS 상승이 NIM 개선에 2bp 기여했고, 외화 스프레드 개선이 1bp 추가 기여했다. 그 외 카드부문도 연초 빠른 신판 및 대출 성장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다.

Pros & cons : 수수료이익과 건전성 부문이 크게 개선

1분기 은행 원화대출금은 소호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1.5% 증가했다. 최근의 부동산임대업이나 신용 관련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연 5% 성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1분기 수수료이익은 3,048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9%나 증가했다. 금융상품판매수수료가 전분기대비 29% 증가하면서 전체 수수료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전사적인 수수료이익 강화 정책 덕분이며, 세부적으로는 ELT 판매액이 전분기대비 1조원이 늘었으며, 수익증권도 잔고와 수익 모두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1분기 대손율은 0.21%, 충당금전입액은 1,22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당초 대손율은 0.25%, 충당금전입액은 1,600억원이 경상 수준이었다. 특별한 환입 요인이 없었던 가운데, 은행 기업대출 부문 건전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된 덕분이다.

Action : 목표주가 22,000원 유지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2,000원을 유지한다. 모든 지표들이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STX엔진이나 금호타이어 관련 비용 환입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순이익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9조원을 전망한다.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이 지속되면서 ROE는 10%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PBR은 여전히 0.59배다.

매수(유지)

목표주가: 22,000원(유지)

Stock Data

KOSPI(4/20)	2,476
주가(4/20)	15,300
시가총액(십억원)	10,343
발행주식수(백만)	676
52주 최고/최저가(원)	19,550/13,7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26,386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75.8/26.1
주요주주(%)	예금보험공사 18.4
	국민연금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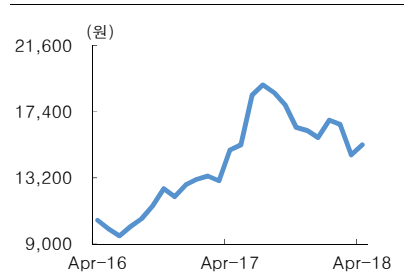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2017A	2018F	2019F
PER(x)	7.9	5.8	5.8
PBR(x)	0.61	0.56	0.52
ROE(%)	8.0	10.2	9.6
DY(%)	3.8	4.9	5.2
EPS(원)	1,998	2,624	2,636
BPS(원)	25,767	27,434	29,32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6)	(12.8)	7.7
KOSPI 대비(%p)	(1.2)	(12.3)	(7.5)

주가추이



자료: WISEFn

백두산

doosan@truefriend.com

<표 1> 분기 실적 및 컨센서스

(단위: 십억원)

	1Q17	2Q17	3Q17	4Q17	1Q18P	QoQ(%)	YoY(%)	컨센서스
순이자이익	1,263	1,288	1,352	1,319	1,367	3.7	8.3	1,347
총전이익	908	806	589	432	928	114.7	2.2	848
금융자산 손상차손	79	204	217	284	122	(56.9)	54.5	171
세전이익	829	601	372	148	805	444.3	(2.8)	67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37	461	280	134	590	341.3	(7.5)	498

자료: 우리은행, FnGuid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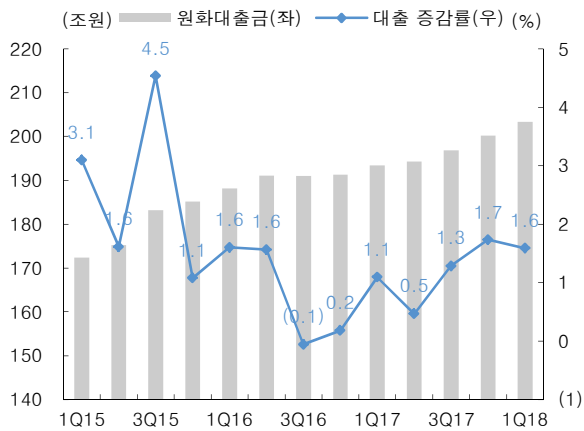
<표 2> 1분기 실적 및 전망 변경

(단위: 십억원, 조원, %, %p)

	FY17		FY18(변경 전)		FY18(변경 후)					1Q18 리뷰			FY19F
	1Q	연간	1QF	연간	1QP	2QF	3QF	4QF	연간	기존대비	YoY	QoQ	연간
총영업이익	1,713	6,473	1,657	6,654	1,683	1,646	1,690	1,620	6,638	1.5	(1.8)	10.5	6,857
순이자이익	1,263	5,221	1,333	5,585	1,367	1,407	1,462	1,475	5,711	2.5	8.3	3.7	6,057
비이자이익	451	1,252	324	1,068	315	240	227	145	927	(2.6)	(30.0)	54.7	800
순수수료 수익	275	1,070	281	1,138	305	291	290	267	1,153	8.4	10.9	19.1	1,160
유가증권 처분/평가	137	717	126	456	175	92	92	90	449	39.1	27.8	(8.4)	374
기타비이자이익	39	(536)	(83)	(527)	(164)	(144)	(154)	(212)	(675)	적지	적전	적지	(734)
일반관리비	754	3,531	758	3,454	740	814	820	1,117	3,491	(2.4)	(1.9)	(16.3)	3,501
인건비	465	2,324	457	2,136	444	479	501	744	2,169	(2.8)	(4.5)	(20.9)	2,173
대손충당금전입액	79	785	138	545	122	70	137	160	489	(11.5)	54.5	(56.9)	690
총전영업이익	959	2,942	899	3,200	943	832	870	503	3,148	4.9	(1.7)	47.6	3,356
영업이익	880	2,157	761	2,655	820	762	733	343	2,659	7.8	(6.7)	131.2	2,666
총전이익	908	2,735	906	3,213	928	832	870	503	3,132	2.4	2.2	114.7	3,356
세전이익	829	1,950	768	2,668	805	762	733	343	2,643	4.9	(2.8)	444.3	2,666
당기순이익	643	1,530	563	1,955	595	559	538	251	1,942	5.7	(7.5)	331.9	1,954
지배순이익	637	1,512	553	1,917	590	549	528	248	1,915	6.7	(7.5)	341.3	1,923
대차대조표(조원)													
총자산	311	316	330	342	326	333	337	337	337	(1.3)	4.8	3.0	353
대출채권	236	252	245	255	264	266	268	269	269	7.6	12.0	5.0	281
총부채	290	296	309	320	305	312	315	316	316	(1.3)	5.1	3.2	330
자기자본	20.6	20.6	20.8	22.0	20.5	21.1	21.5	21.7	21.7	(1.2)	(0.1)	(0.1)	23.0
지배자기자본	20.4	20.4	20.6	21.8	20.3	20.9	21.3	21.5	21.5	(1.2)	(0.3)	(0.1)	22.8
주요지표(KIS 기준)													
NIM	1.64	1.64	1.69	1.71	1.71	1.69	1.70	1.72	1.70	0.02	0.07	0.08	1.73
대손율	0.15	0.35	0.25	0.23	0.22	0.12	0.23	0.27	0.21	(0.03)	0.07	(0.29)	0.28
고정이하여신비율	0.85	0.83	0.85	0.82	0.79	0.68	0.69	0.73	0.73	(0.06)	(0.06)	(0.04)	0.81
이익경비율	44	55	46	52	44	49	49	69	53	(2)	(0)	(14)	51
ROE	12.5	8.0	10.8	10.1	11.6	10.8	10.1	4.7	10.2	0.8	(0.9)	9.0	9.6
보통주자본비율	10.8	11.0	11.1	11.6	11.0	11.2	11.5	11.4	11.4	(0.1)	0.2	0.0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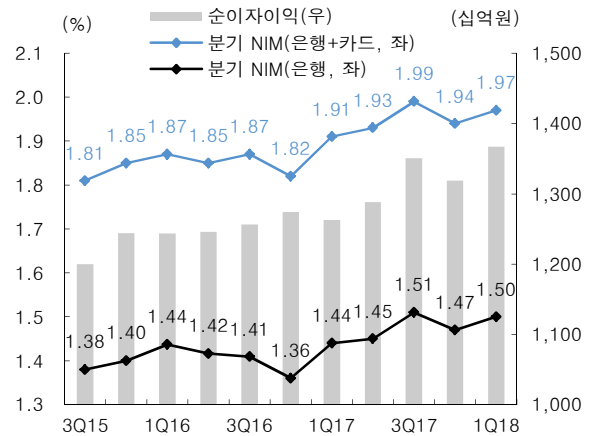
자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전분기대비 대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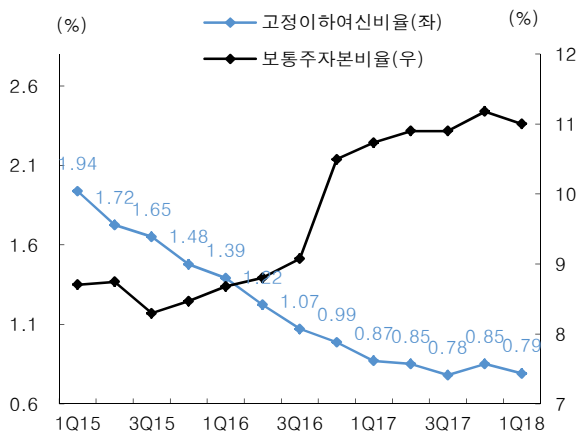
자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순이자이익 및 N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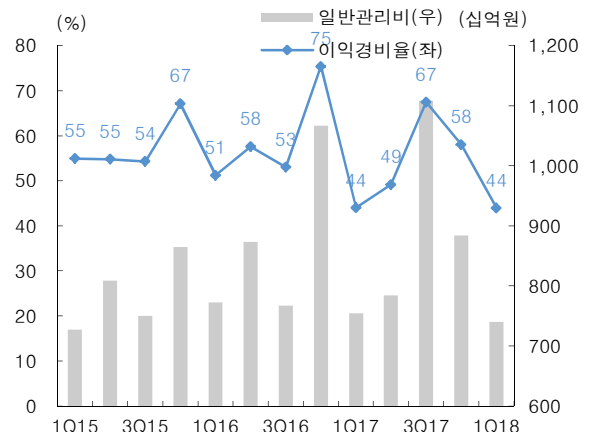
자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



자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일반관리비 및 이익경비율



자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은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해 탄생했다. 이후 2001년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그 해 평화은행을 분할합병했다. 2002년에는 지금의 우리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공격자금 회수 일환으로 2014년 상반기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분할 뒤 매각했으며, 우리투자증권, 우리파이낸셜, 우리에프앤아이 등 비은행 자회사 상당수를 매각했다. 그 뒤 2014년 11월 우리은행은 몸집이 축소된 우리금융지주를 흡수합병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우리증권 등을 자회사로 보유 중이다.

- 순이자마진(NIM): 순이자이익 / 이자수익자산(평잔)
- 고정이하여신: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여신 분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산
-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 대손율: 대손충당금전입액 / 총여신
- 이익경비율: 일반관리비 / 총영업이익
- 보통주자본비율(CET1 ratio): 보통주자본 / 위험가중자산(RWA)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총자산	310,683	316,295	337,387	352,625	368,293
현금 및 예치금	22,433	15,803	14,119	14,407	15,007
유가증권	40,493	37,979	42,921	45,052	46,916
대출채권	235,401	251,523	269,348	281,394	293,980
유형자산	2,458	2,478	2,212	2,265	2,195
투자부동산	359	371	369	369	368
관계기업투자	439	417	434	437	437
무형자산과 영업권	484	519	542	647	669
기타자산	8,617	7,206	7,442	8,056	8,720
총부채	290,137	295,731	315,689	329,645	343,873
예수금	221,020	234,695	248,045	258,973	270,568
당기손익인식지점금융부채	767	252	217	227	232
단기매매금융부채	27	26	22	23	24
차입부채	18,770	14,785	15,583	16,316	17,060
사채	23,565	27,870	28,954	30,191	31,541
기타부채	25,988	18,103	22,868	23,915	24,449
자기자본	20,546	20,565	21,698	22,980	24,420
(지배주주지분) 자기자본	20,386	20,366	21,488	22,758	24,184
자본금	3,381	3,381	3,381	3,381	3,381
보통주자본금	3,381	3,381	3,381	3,381	3,381
신종자본증권	3,575	3,018	3,018	3,018	3,018
자본잉여금	286	286	286	286	286
자본조정	(1,641)	(1,850)	(1,850)	(1,850)	(1,8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3	(90)	(300)	(300)	(300)
이익잉여금	14,612	15,620	16,952	18,222	19,648

주요재무지표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수익성(%)					
ROE	6.7	8.0	10.2	9.6	10.0
ROA	0.36	0.43	0.56	0.53	0.56
순이자마진(NIM)	1.61	1.64	1.70	1.73	1.77
예대금리차(NIS)	1.77	1.81	1.86	1.89	1.92
Cost-income ratio	59.1	54.5	52.6	51.1	49.0
성장 및 효율(%)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	19.1	19.9	26.6	0.4	9.9
대출채권 증가율	4.4	6.8	7.1	4.5	4.5
총전이익 증가율	(1.3)	14.5	14.5	7.1	10.9
대손비용 증가율	(13.7)	(5.9)	(37.7)	41.1	15.2
총자산 증가율	6.4	1.8	6.7	4.5	4.4
대출채권/예수금	106.5	107.2	108.6	108.7	108.7
자산건전성(%)					
NPL(고정이하여신) 비율	0.98	0.83	0.73	0.81	0.86
NPL 커버리지 비율	165.1	87.7	99.8	100.9	106.3
자본적정성(%)					
BIS 자기자본 비율	15.3	15.4	15.5	16.3	15.4
보통주자본비율(CET1)	10.5	11.0	11.4	12.3	11.6
기본자본비율(Tier 1 ratio)	12.7	13.9	13.3	14.2	13.2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총영업이익	5,887	6,473	6,638	6,857	7,302
순이자이익	5,020	5,221	5,711	6,057	6,452
이자수익	8,512	8,551	9,717	10,691	11,705
이자비용	3,493	3,330	4,006	4,633	5,253
비이자이익	867	1,252	927	800	850
순수수료 수익	937	1,070	1,153	1,160	1,210
유가증권 처분/평가	384	717	449	374	389
기타비이자이익 항목	(454)	(536)	(675)	(734)	(749)
대손상각비+총당부채순전입액	834	785	489	690	795
순영업수익	5,053	5,688	6,149	6,167	6,507
판관비	3,478	3,531	3,491	3,501	3,579
인건비	2,125	2,324	2,169	2,173	2,217
각종 상각비	248	184	231	251	256
고정비성 경비	517	514	531	533	543
변동비성 경비	588	510	560	545	563
영업이익	1,574	2,157	2,659	2,666	2,929
영업외이익	(21)	(207)	(15)	0	0
(총당금적립전이익)	2,387	2,735	3,132	3,356	3,72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553	1,950	2,643	2,666	2,929
법인세비용	276	419	702	712	782
(실효세율)(%)	17.8	21.5	26.6	26.7	26.7
계속사업이익	1,278	1,530	1,941	1,954	2,147
중단사업이익	0	0	(1)	0	0
당기순이익	1,278	1,530	1,942	1,954	2,147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1,261	1,512	1,915	1,923	2,113

Valuation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 지표(원)					
BPS(KIS기준)	24,970	25,767	27,434	29,320	31,438
EPS(KIS기준)	1,567	1,998	2,624	2,636	2,918
DPS	400	600	750	800	850
주가 지표(배)					
P/B	0.51	0.61	0.56	0.52	0.49
P/E	8.1	7.9	5.8	5.8	5.2
P/PPE	4.5	5.0	4.6	4.2	3.7
배당수익률(%)	3.1	3.8	4.9	5.2	5.6
배당성장률(%)	21.4	26.7	26.4	28.0	27.1
ROE 분해(%)					
ROE	6.7	8.0	10.2	9.6	10.0
레버리지(배)	18.4	18.5	18.2	18.3	17.9
이자부자산 비율	91.1	89.3	91.9	90.5	90.4
순이익/이자부자산	0.40	0.48	0.61	0.58	0.62
순이자이익률	1.89	1.88	1.96	1.98	2.02
비이자이익률	0.33	0.45	0.32	0.26	0.27
대손상각비율	(0.31)	(0.28)	(0.17)	(0.23)	(0.25)
판관비율	(1.31)	(1.27)	(1.20)	(1.15)	(1.12)
기타이익률	(0.20)	(0.29)	(0.31)	(0.29)	(0.30)

원화 강세 구간 진입

글로벌 경기 반등으로 인한 이머징 통화 강세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자금유입
 1분기 부진과 2분기 경기 반등이 혼조되어 나타날 경제지표

원화 강세 구간 진입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우선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이머징 자산 전반에 대한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번 자료에서 언급했지만 글로벌 경기 바닥 시그널은 1) KIS 글로벌 경기확산지수 하락세가 멈추고, 2) 단기 재고사이클이 가장 잘 반영되는 미국 회사채 발행잔액 반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상 이러한 경기바닥 시그널이 출현하면 회사채 스프레드는 다시 축소된다. 실제로 미국 BAA 등급 회사채 10년물과 미국채 10년물간의 스프레드는 3월 마지막 주 187bp까지 확대된 후 현재 176bp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러한 스프레드 축소는 결국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선호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반등과 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 재개는 원화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른 국내 외국인 자금 유입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현재 한국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 원화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현재 중국 위안화 CDS 프리미엄보다 낮아진 상태다. 이처럼 낮아진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을 높여주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진행되는 시기에 원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그림 1] 회사채 스프레드와 원/달러 환율



박정우
 jw.park@truefriend.com
 정희성
 hs.jeong@truefriend.com
 김다경
 dahkyung.kim@truefriend.com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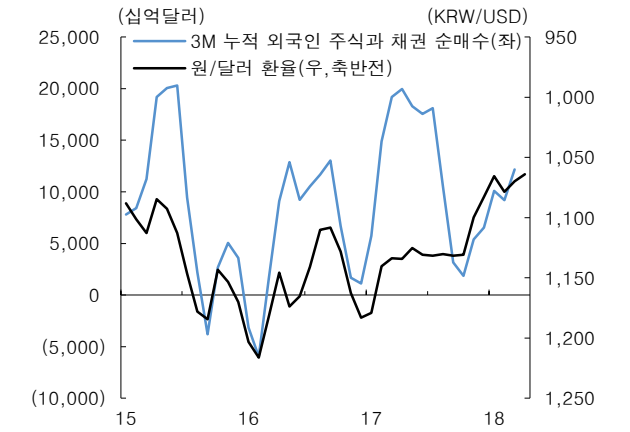
따라서 글로벌 경기반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요인에 의해 원/달러 환율은 1,050원을 하향 돌파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국과 중국 CDS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외국인 국내주식과 채권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매크로 포커스: 1분기 부진보다 2분기 경기 반등, 남북정상회담

1분기 부진은 이미 알려졌다. 4월 마지막 주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2.0%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소비와 주택투자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면서 전체 성장률은 눈높이에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3월 소매판매가 회복되었고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저축률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2분기 소비 반등과 설비투자 확대가 이끄는 경기반등에 더 무게를 두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미국 내구재 주문은 3월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규주택 판매도 최근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다만 최근 금리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4월 세금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1.1%(전년비 3.1%)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소비가 경기를 이끄는 가운데 정부도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지출 회복이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확인되면서 국내 경제에 온기가 서서히 확산되는 현상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억눌렸던 심리지표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들의 경기전망이 다소 개선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보다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재고 사이클 둔화로 부진했던 국내 기업들의 경기전망도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 등의 소식에 힘입어 이번 달은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월 마지막 주에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예정되어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에 묻힐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가 시작되는 한 주를 기대해 본다.

〈표 1〉 주간 주요 경제지표

날짜	이벤트	당사 예상치	시장 예상치	이전치
4/23	미국 3월 기존주택매매 백만 건	n/a	5.55	5.54
	유럽 4월 마킷 제조업 PMI	n/a	56.0	56.6
4/24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 천 건	640	628	618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pt	125.8	126.0	127.7
4/25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pt	108.5	n/a	108.1
4/26	미국 3월 내구재주문 속도치 MoM	1.5%	1.1%	3.0%
4/27	ECB 통화정책회의			
	남-북 정상회담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			
	한국 1분기 GDP 속도치 YoY	3.1%	3.0%	2.8%
	한국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pt	78	n/a	74
	미국 1분기 GDP 속도치 QoQ SAAR	2.0%	2.1%	2.9%
	일본 3월 광공업생산 MoM	n/a	0.2%	2.0%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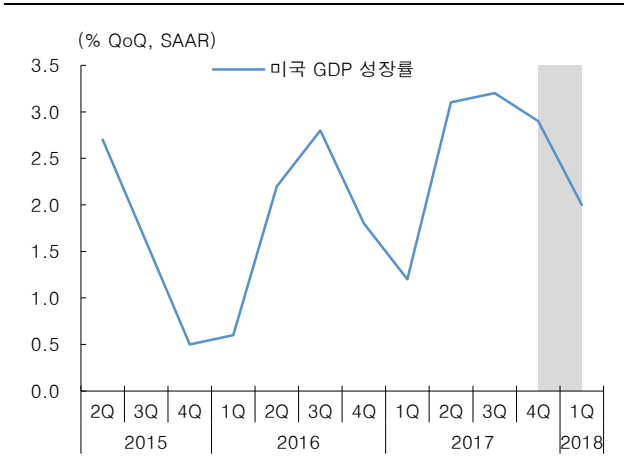
최근 발간자료 목록

구분	제목	핵심내용
1) 글로벌 경제	이제 시작되는 성장의 길(17/09/04)	글로벌 경제 본격적인 성장으로의 진입 단계. 유동성 흐름 조절 시작될 것
	경기선행지수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17/10/10)	경기선행지수 연말까지 상승흐름 이어가며 주가와 기업이익도 상승할 것
	경기확장국면 진입에 따른 특징(18/01/31)	경기 확장국면 진입하며 예상을 상회하는 투자와 소비의 수요 확장 나타날 것
	낮선 변화, 지속 가능한 성장(18/02/28)	익숙한 재고 사이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향하는 글로벌 경기
	다시 시작된 낙관의 물결(18/04/02)	연초 이후 계절적 요인과 재고사이클 둔화로 부진했던 글로벌 경기 반등국면
2) 국내 경제	이제 시작된 한국 가계의 자산 회복(17/07/03)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국 가계의 자산회복 기조 이어질 것
	한국 가계가 부유해지려면(17/07/31)	가계의 은행예금 비중을 줄이고 배당을 포함한 투자소득에 집중해야 할 것
	낙관론의 근거 1) ROE 회복 지속 가능성(17/10/16)	창조적 파괴의 구간, 새로운 성장과 ROE 회복을 낙관하는 이유
	낙관론의 근거 2) 교역조건과 낙수효과 회복(17/10/23)	국내 교역조건 개선으로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 강화, 민간소비 회복기대
	금리인상에도 내수경기 이상 없다(17/12/04)	금리인상에도 가계 소비지출 확대의 경기회복 경로는 유효 할 것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내수회복(18/03/16)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내수경기회복	
3) 통화정책	연준의 자산긴축을 반기는 이유(17/09/11)	연준의 자산긴축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용사이클 회복을 알리는 시그널
	9월 FOMC, 라스트 비둘기(17/09/18)	9월 FOMC를 마지막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은 보다 매파적으로 전환할 것
4) 환율	하반기 자본유출 규모와 외환시장 영향(17/08/07)	하반기 금융계정 통한 자본유출 규모 확대로 인해 원화 약세 흐름 예상
	달러화 상승의 이유(17/08/14)	하반기 연준 금리인상 속도의 정상화가 달러화 강세를 이끌 것
	달러화, 약세 중단 이후 방향탐색 시간(17/09/25)	달러화 약세 중단 이후,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
	이례적인 달러화와 원화의 동반 강세(17/11/06)	달러화와 원화의 동반강세로 원/달러 환율 1,100 ~ 1,130원 거래 전망
	원화의 나홀로 강세, 속도조절이 필요한 순간(17/11/20)	최근 가파르게 진행된 원화의 추가 강세는 제한적일 전망
원/달러 환율 레드라인은?(18/04/06)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원화 강세이나 정부 개입으로 1,050원대 안착 흐름 예상	

매크로 포커스(Review/Preview)

1) 주요 경제지표 프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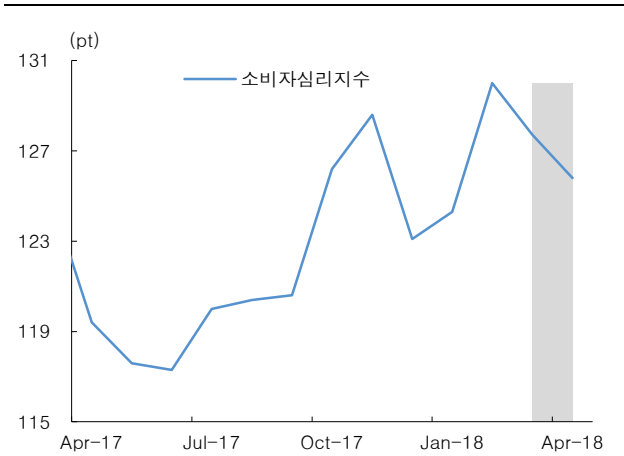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1분기 GDP 2.0% 성장에 그칠 전망



▶ 미국 1분기 GDP(4/27 발표, 예상치 +2.0% QoQ SAAR)

-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인 2.1%를 하회하는 2.0% 전망
- 지난 4분기 성장률을 견인했던 소비와 주택투자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면서 전체 성장률이 눈높이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
- 3월 소매판매 회복과 더불어 저축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1분기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 것으로 기대
- 2분기 소비 반등과 설비투자 확대가 경기 반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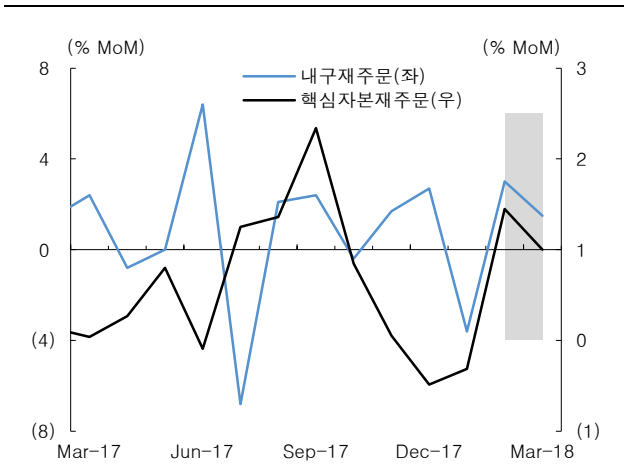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 이어갈 듯



▶ 미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4/24발표, 예상치 125.8)

-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하는 미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시장 예상치인 126.3을 하회하는 125.8 예상. 전월보다 하락폭은 둔화될 전망
- 중-미 무역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지역 불확실성 확대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월보다 둔화되었을 것으로 판단
- 한편 4월에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상승도 지속되는 등 고용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심리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

[그림 6]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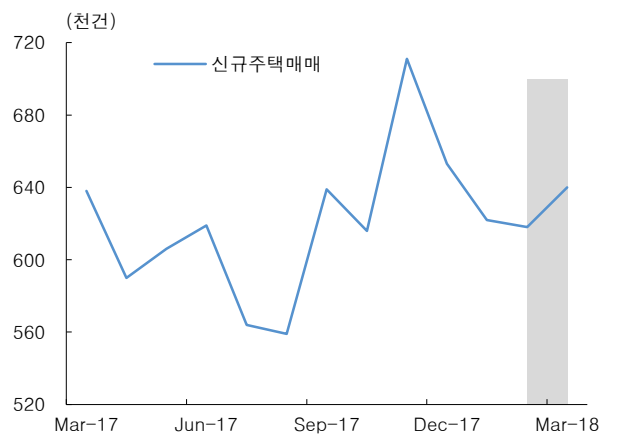


▶ 미국 3월 내구재주문(4/26 발표, 예상치 +1.5% MoM)

- 미국 3월 내구재주문 속보치는 전월비 1.5% 확대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1.0%를 상회할 전망
- 3월 핵심 자본재 주문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월 대비 1.0% 확대 예상. 한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자본재 수출 국가들의 대(對)미 수출 실적이 전월보다 감소한 영향
- 다만 3월 들어 에너지 관련 투자를 주도하는 Rig Counts가 급등했고 달러화 약세로 미국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대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심리는 양호했을 전망

주: 음영부분 당사 전망치
 자료: CEI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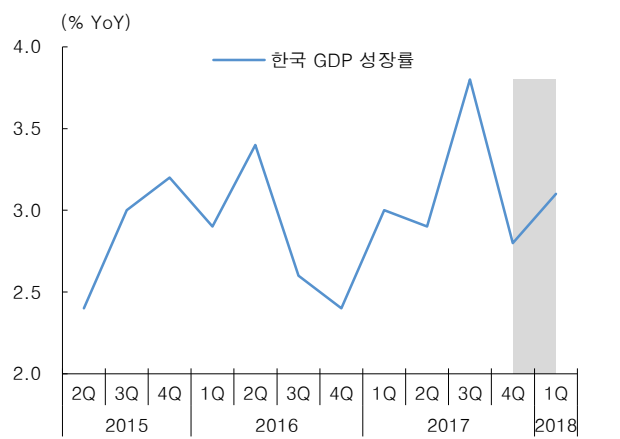
[그림 7]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 전월비 확대 예상



▶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4/24 발표, 예상치 64만 건)

-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는 시장 예상치 62만8천 건을 웃도는 64만건 예상
- 3월 신용 여건 개선으로 더 나은 주택대출 환경이 조성되면서 신규주택판매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
- 3월 초부터 상승 흐름을 지속 중인 MBA 주택구매지수 역시 주택판매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
- 주택착공과 건축허가건수가 연초부터 17년 연평균수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해온 가운데 원활한 주택공급이 수요와 균형을 맞춰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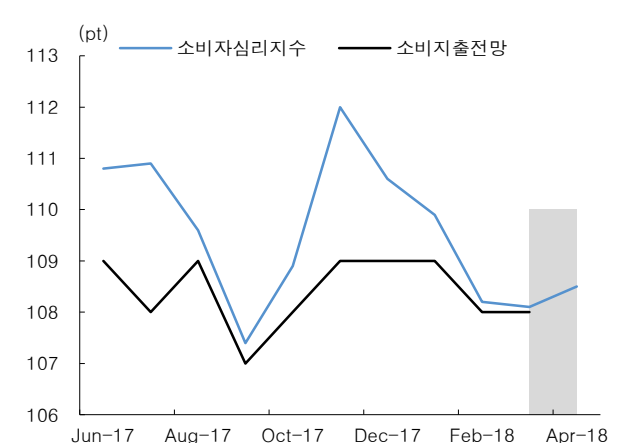
[그림 8]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전년대비 3.1% 전망



▶ 한국 1분기 GDP 성장률(4/27 발표, 예상치 +3.1% YoY)

- 한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3.1%, 전기비 1.1%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확인해줄 것
- 작년 높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개선세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판단
- 이에 1분기 소비지출 회복이 확인되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경기 성장 국면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 9]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반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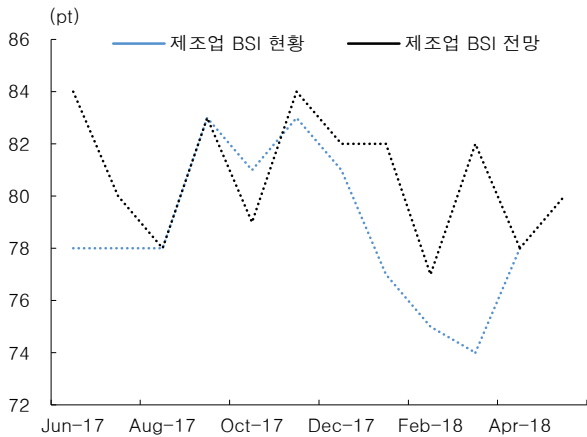


▶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4/25 발표, 예상치 108.5pt)

-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108.1pt에서 반등한 108.5pt 기록할 전망
- 전월 지수 둔화에도 세부항목인 소비지출전망은 견조한 흐름. 특히 실질소비를 반영하는 의류(=), 외식(=), 여행비(+2)는 양호한 모습 보이며 향후 경기전망 개선과 함께 소비심리 역시 반등할 것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소비심리에 부정적 요인이나, 상반기 일자리 추경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이 소득안정으로 이어지며 소비자심리지수 반등을 이끌 것

주: 음영부분 당사 전망치
 자료: CEI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한국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월 부진에서 반등



주: 음영부분 당사 전망치
 자료: CEI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한국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4/27 발표, 예상치 78pt)
- 한국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74pt에서 반등한 78pt 기록 예상. 5월 제조업 경기 전망 역시 80pt로 반등
 - 3월 제조업 BSI의 부진은 부정적 수출과 내수 판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세부항목인 가동률이나 설비투자, 채산성 등 기업 펀더멘털은 건조한 흐름
 - 연초 글로벌 재고 사이클 둔화로 부진했던 제조업 심리도 반등 시그널이 확인되면서 재차 긍정적으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 중-미 무역분쟁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역시 긍정적 요인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

- 뉴욕증시는 미 국제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부진과 최근 유가강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금융투자, 연기금 등 일부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2,470P선으로 밀려남.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890P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상승폭을 줄이며 887P로 마감. 미국 정부가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기 위해 국제긴급경제제한법(IEEPA)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재고조되며 중국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 기대감에 메디포스트가 10% 이상 초강세를 보였으며, 1분기 실적 호조 및 자회사 상장 기대감에 티웨이홀딩스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북한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병동 공급사업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결핵퇴치를 위한 유진벨재단과 북한 결핵환자 치료 병동 공급사업을 체결한 에스와이패널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칠레 태양광 프로젝트 확대 소식에 에스에너지가 초강세를 보임.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혼풍으로 남북 관계 개선시 북한 주택 건축 시장 개방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건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됐으며,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대규모 자사주 처분 소식에 고려시멘트가 급락했으며, 반도체업체 TSMC의 2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여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종목/테마	내 용
메디포스트(078160) ▶136,200 (+10.28%)	'카티스템' 판매 증가 소식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국내 처방이 이달 현재까지 300건을 넘어서고, 올 들어 1,100건을 돌파해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 '카티스템'은 지난해 국내줄기세포치료제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누적 판매량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티웨이홀딩스(004870) ▶6,280 (+7.35%)	실적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린 가운데 올 1분기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아울러, 지분 81.02%를 보유한 자회사 티웨이항공이 지난달 코스피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상장 시 지분 가치 상승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통신장비주	내년 5G 상용화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망 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 기대감 등으로 강세 - 케이엠더블유(032500, +9.03%), 텔레필드(091440, +7.10%), 오이솔루션(138080, +6.17%), 이노와이어리스(073490, +6.06%), 다산네트웍스(039560, +4.68%), 삼지전자(037460, +4.40%) 등 강세
원전 관련주	사우디 원전 예비사업자 선정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이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예비사업자를 오는 4월말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짐에 따라 수주 기대감에 강세 - 웰크론강원(114190, +17.09%), 보성파워텍(006910, +16.71%), 오르비텍(046120, +12.76%), 한전기술(052690, +6.08%), 비에이치아이(083650, +5.41%), 한국전력(015760, +3.17%), 두산중공업(034020, +3.0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뉴욕증시는 본격적인 어닝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발표, 미 국제금리 상승, 국제유가 강세 등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임
- 국내증시는 다음주 남북 정상회담을 한주 앞두고 양국간 관계 개선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코스피가 주중 2,480P선을, 코스닥은 900P선을 회복하며 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주 후반 외국인 매도세가 발목을 잡으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 대북 관련 수혜주로 매수세가 집중된 반면 최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고평가 논란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임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전기전자	삼화콘덴서	62,200	20.2	산업재	건설업	남광토건	31,450	63.2
	소재	철강금속	한국주철관	12,500	19.2	산업재	건설업	까뮤이앤씨	15,250	8.9
	소재	철강금속	동양철관	2,135	41.7	산업재	건설업	한라	6,050	38.6
	소재	철강금속	문배철강	3,375	16.2	산업재	건설업	현대건설	50,400	17.8
	소재	서비스업	아세아	135,500	5.9	산업재	전기전자	광명전기	4,845	33.3
	소재	종이목재	신대양제지	76,800	6.1	산업재	서비스업	웅진	4,170	25.7
	금융	증권	키움증권	116,000	1.4	유틸리티	서비스업	한전기술	35,750	23.9
	산업재	기계	동양물산	2,610	26.6	필수소비재	음식료	롯데푸드	726,000	6.6
	산업재	기계	퍼스텍	4,210	12.5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성안	942	15.1
	산업재	건설업	GS건설	37,150	7.7					
코스닥	IT	IT부품	대주전자재료	21,400	17.2	산업재	IT부품	이화전기	577	51.3
	IT	IT부품	태양씨앤엘	2,645	20.1	산업재	종합건설	특수건설	8,590	55.4
	IT	IT부품	슈피겐코리아	53,800	6.4	산업재	종합건설	남화토건	18,500	63.2
	IT	반도체	코미코	37,050	11.6	산업재	종합건설	이화공영	12,650	68.9
	IT	인터넷	카페24	139,800	0.8	산업재	기계장비	흥국	10,250	18.8
	IT	기타제조	서울러거	5,550	2.0	산업재	육상운송	삼일	2,420	14.1
	IT	정보기기	딜리	2,840	8.4	산업재	전기전자	비츠로테크	7,490	8.2
	IT	전기전자	서호전기	16,800	4.5	산업재	전문기술	오르비텍	6,540	38.8
	소재	금속	삼현철강	5,310	17.9	산업재	전문기술	유신	17,500	28.3
	소재	금속	포스코엠텍	3,920	23.2	건강관리	제약	중앙백신	23,300	20.8
	소재	금속	대호피앤씨	2,305	4.3	경기소비재	교육	디지털대상	4,640	8.7
	소재	종이, 목재	대림제지	2,100	16.4	경기소비재	화학	코스메카코리아	72,000	12.5
	산업재	금속	웰크론강원	3,460	36.6	경기소비재	면세점	JTC	18,800	23.1
	산업재	금속	보성파워텍	4,050	25.8	경기소비재	방송서비스	KMH	12,600	7.8

주) 상기 종목들은 4월 20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단기 유망종목: 코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코텍 (052330)	16,050 (+6.3)	15,100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슬롯머신 1위, 2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한 카지노용 모니터 생산 기업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 - 고객사의 커버드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믹스 개선으로 카지노모니터 부문의 영업이익을 상승 예상 - 현금성자산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 보유로 배당 확대 여력 충분
서진시스템 (178320)	39,350 (+3.1)	38,150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가공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방 산업과 고객사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 - 상장 첫 해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소멸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개선 예상 - 기존 사업군인 통신장비, 모바일, 반도체 부품 사업 더불어 ESS 및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
롯데정밀화학 (004000)	70,000 (-6.9)	75,200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법 이익 급증과 전 사업부 실적 호조로 2018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 전망 - 향후 2~3년 동안은 제한적인 증설로 ECH(Epichlorohydrine)와 가성소다 가격은 강세 기조를 지속할 전망 - 주주친화정책 강화에 따라 배당성향은 30%까지 확대될 전망
쌍용양회 (003410)	25,250 (+27.2)	19,85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발전 투자 마무리와 수출량 증가로 안정적 성장 전망 - 내륙과 해안공장을 모두 보유해 전국권 커버와 13개국 수출이 가능하고 대한시멘트 인수로 슬래그시멘트 시장 장악 - 2017년 잉여현금흐름의 60%를 배당으로 환원하는 고배당 정책을 시작하여 2018년 기준 7% 이상의 배당수익률 예상
동화기업 (025900)	34,800 (-6.2)	37,100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2분기 본격 가동이 시작된 VRG동화 제2공장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지속적인 외형성장 기대 - 베트남 주택분양 방식이 마감재와 빌트인 가구까지 포함되는 완성형 분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수혜 전망 - 친환경 제품 중심 믹스 개선에 따른 하우징사업부의 이익을 개선 전망
SIMPAC Metal (090730)	13,050 (+12.5)	11,60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부터 설비를 풀 가동함에 따라 금년 1분기에는 분기 최고 실적 달성 예상 -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른 합금철의 공급 감소로 합금철 가격이 구조적인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여의도의 SIMPAC 빌딩 지분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자산가치 부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기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성전기 (009150)	122,000 (+5.6)	115,500 (4/13)	8,016	702	427	5,656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부품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 호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국면 지속 전망 -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 전망 -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S10에 3D센싱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이와 관련한 모듈 제작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현대중공업지주 (267250)	411,000 (-5.4)	434,500 (2/27)	25,018	2,175	1,170	79,950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고도화에 따른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매출 큰 폭 증가 - 올해 안에 유류 정유 생산능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아시아 spot 정제마진 역사적 고점 돌파 전망 - 3월 현대오일뱅크의 고배당 지급이 예상되며,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전망 							
이마트 (139480)	267,000 (-6.3)	285,000 (2/7)	18,167	613	474	17,013	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finity Equity Partners 및 BRV Capital Management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로 온라인 사업 부문 역량 강화 전망 -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의 협상력과 물류망의 경쟁우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규 상품의 개발역력 확대 예상 - 외형성장과 함께 손익 개선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리레이팅 본격화 가능성 상존 							
한솔시큐어 (070300)	6,310 (+6.9)	5,900 (12/28)	19	3	2	272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5,350 (+17.2)	13,100 (12/28)	92	11	9	1,446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이엔텍 (091120)	19,000 (+8.0)	17,600 (12/28)	235	19	13	882	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삼성전기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반도체	853	소프트웨어	-270	소매(유통)	108	반도체	-3,228
	유틸리티	398	상사, 자본재	-213	운송	80	건강관리	-868
	건설, 건축관련	326	건강관리	-207	비철, 목재 등	49	기계	-257
	호텔, 레저서비스	229	에너지	-101	통신서비스	47	호텔, 레저서비스	-176
	IT가전	158	비철, 목재 등	-58	에너지	47	소프트웨어	-164
	삼성전자	670	KODEX 레버리지	-311	현대차	162	삼성전자	-1,914
종목	한국전력	285	NAVER	-13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31	SK하이닉스	-1,134
	LG전자	230	엔씨소프트	-103	현대건설	111	삼성바이오로직스	-498
	현대산업	187	한국타이어	-85	LG전자	100	셀트리온	-395
	강원랜드	182	남해화학	-71	신세계	70	현대엘리베이	-220
	SK하이닉스	150	카카오	-69	KB금융	69	삼성물산	-169
	현대차	137	한국항공우주	-68	고려아연	66	현대산업	-167
	KODEX 200선물인버스2X	123	삼성엔지니어링	-60	삼성전기	59	하나금융지주	-155
	현대제철	122	LG	-57	삼성에스디에스	59	삼성SDI	-144
	GS건설	79	KT&G	-56	SK텔레콤	56	강원랜드	-140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250	미디어, 교육	-124	조선	66	건강관리	-198
	IT하드웨어	48	호텔, 레저서비스	-39	미디어, 교육	65	소프트웨어	-60
	디스플레이	45	반도체	-37	반도체	56	디스플레이	-54
	화장품, 의류, 완구	30	필수소비재	-31	IT하드웨어	54	호텔, 레저서비스	-24
	소프트웨어	29	소매(유통)	-27	필수소비재	42	건설, 건축관련	-21
	제넥신	85	파라다이스	-60	필어비스	63	신라젠	-145
종목	셀트리온제약	50	에코프로	-45	에이치엘비	58	휴온스	-62
	필어비스	49	CJ E&M	-42	예림당	33	비에이치	-62
	비에이치	36	에스엠	-35	셀트리온제약	31	셀트리온헬스케어	-58
	레코엠바이오	26	컴투스	-31	네이처셀	28	안랩	-56
	주성엔지니어링	26	휴젤	-30	대주전자재료	27	카페24	-54
	와이엠티	20	재영솔루텍	-29	컴투스	27	메디톡스	-46
	유진기업	18	셀트리온헬스케어	-28	차바이오텍	25	텍셀네트콤	-45
	JTC	18	KMH	-27	코미코	20	에코프로	-44
	바텍	18	이지바이오	-25	하림	19	케이엘넷	-25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31,366	2,581,000	-2.20	1.30
SK하이닉스	61,443	84,400	-3.98	10.33
현대차	35,244	160,000	1.27	2.56
셀트리온	33,654	269,000	0.94	21.66
삼성바이오로직스	33,479	506,000	-0.20	36.39
POSCO	30,472	349,500	-1.55	5.11
LG화학	26,296	372,500	-0.93	-8.02
삼성물산	25,893	136,500	-1.80	8.33
KB금융	25,296	60,500	0.83	-4.57
NAVER	23,997	728,000	-1.36	-16.32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1,951	86,900	0.93	-20.0
신라젠	6,728	97,600	-3.17	4.4
메디톡스	3,892	688,000	-0.30	41.9
에이치엘비	3,685	101,100	9.18	161.6
CJ E&M	3,590	92,700	-1.59	-5.1
바이로메드	3,577	224,200	0.45	37.3
필어비스	3,205	256,000	2.81	3.4
셀트리온제약	2,914	85,600	4.90	39.9
코오롱티슈진	2,756	45,250	-0.33	-12.6
스튜디오드래곤	2,607	93,000	-1.27	43.1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종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17.05	-0.24	1.28	-0.05	0.78
	MSCI 선진국	2,115.93	-0.37	1.29	0.24	0.59
	MSCI 신흥국	1,184.13	0.68	1.20	-2.13	2.22
DM	S&P500	2,693.13	-0.57	1.09	-0.88	0.73
	Dow Jones	24,664.89	-0.34	0.74	-0.25	-0.22
	Nasdaq	7,238.06	-0.78	1.37	-1.71	4.85
	Russell 2000	1,573.82	-0.62	1.06	0.22	2.49
	영국 FTSE 100	7,354.96	0.36	1.24	4.16	-4.33
	프랑스 CAC	5,391.81	0.00	1.44	2.65	1.49
	독일 DAX 30	12,561.29	-0.05	0.96	2.06	-2.76
	스페인 IBEX	9,875.50	0.08	1.11	2.00	-1.68
	일본 니케이	22,162.24	-0.13	1.76	3.65	-2.65
	홍콩 항셱	30,418.33	-0.94	-1.27	-3.59	1.67
	EM	코스피	2,476.33	-0.39	0.87	-0.37
코스닥		889.17	0.73	-0.30	-0.14	11.37
중국 상해종합		3,071.54	-1.47	-2.77	-6.66	-7.12
홍콩 H지수		12,054.23	-1.52	-1.69	-4.31	2.95
인도 Sensex		34,407.68	-0.06	0.63	4.28	1.03
베트남 VN		1,119.86	2.30	-3.22	-3.41	13.78
인도네시아 JCI		6,332.49	-0.37	0.99	1.42	-0.36
러시아 RTS		1,147.40	-0.54	3.88	-8.65	-0.61
브라질 Bovespa		85,824.26	0.06	0.45	1.97	12.33
멕시코 Mexbol		48,745.28	-0.70	-0.08	3.54	-1.23
글로벌 업종		에너지	180.36	-0.35	2.20	6.90
	소재	218.45	-0.59	1.79	1.70	1.23
	산업재	290.74	-0.52	0.76	-0.53	-0.52
	경기소비재	261.82	-0.21	-0.02	-0.35	-1.29
	필수소비재	295.32	-0.25	-0.38	-0.98	-1.42
	헬스케어	548.94	-0.09	2.55	1.94	3.93
	금융	181.22	-0.35	0.01	-2.40	-0.44
	IT	384.30	-0.38	0.16	-2.10	5.75
	통신서비스	173.94	0.01	0.89	0.22	-1.83
	유틸리티	170.11	-0.21	0.88	2.04	-0.33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종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0.06	0.13	0.29	-0.34	-2.24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17.44	-0.06	-0.45	-0.36	-1.37
미주	브라질	3.38	-0.14	0.83	-2.90	-2.14
	멕시코	18.45	-0.02	-2.20	1.72	6.55
아시아	한국	1,067.15	-0.52	0.24	0.14	0.02
	일본	107.61	-0.22	-0.24	-1.00	4.72
	중국	6.29	-0.21	-0.27	0.67	3.41
	대만	1.30	0.32	0.77	-0.28	1.33
	인도	66.06	-0.40	-1.28	-1.30	-3.31
유럽	유로존	1.23	-0.24	-0.13	0.60	2.58
	영국	1.41	-0.19	-1.25	0.44	4.05
	러시아	61.40	-0.72	1.25	-6.23	-6.04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종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91	0.39	8.70	1.78	50.83
	캐나다	2.32	3.50	3.70	15.20	27.60
	브라질(USD)	9.74	1.60	-5.70	26.20	-51.20
유럽	멕시코	7.47	1.30	11.10	-10.70	-18.90
	독일	0.59	-0.70	8.20	0.80	16.60
	영국	1.48	-4.30	4.20	-0.80	28.70
아시아	프랑스	0.81	-0.70	7.10	-1.30	2.70
	이탈리아	1.79	1.10	-0.50	-10.50	-22.40
	러시아	4.83	0.20	-1.10	26.10	95.60
	한국	2.64	-0.20	6.20	-8.50	17.30
중국	일본	0.06	1.70	2.20	1.70	1.20
	중국	3.52	2.20	-19.60	-31.40	-38.20
	호주	2.81	2.40	7.10	10.70	17.70
	인도	7.71	7.50	27.60	8.70	37.9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종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74.03	-0.16	1.22	6.25	7.14
	LMEX 지수	3,458.60	-1.00	4.29	7.18	1.16
	CRB 지수	445.53	0.27	1.11	1.01	3.05
에너지	원유(WTI)	68.36	0.10	1.44	7.82	13.14
	원유(Brent)	73.80	0.03	1.68	9.46	10.36
	천연가스	2.67	0.30	-2.45	-0.26	-9.65
금속	금	1,341.80	-0.37	-0.22	2.28	2.48
	은	17.13	-0.66	2.80	6.20	-0.12
	구리	6,984.00	-0.54	2.39	1.90	-3.63
	아연	3,223.00	-1.29	4.17	-1.17	-2.89
농산물	알루미늄	2,485.00	-2.05	6.88	19.01	9.57
	S&P 농산물 지수	302.58	0.03	-0.69	3.44	7.24
	옥수수	389.25	-0.45	-1.33	1.76	5.99
	밀	483.50	-1.48	-1.18	3.15	6.67
	대두	1,043.75	-0.50	-2.00	0.46	6.15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종가	1D	5D	1M	YTD
미국	VIX	16.23	1.69	-6.78	-10.82	47.01
유럽	VSTOXX	13.75	0.08	-10.10	-10.60	1.79
한국	VKOSPI	12.91	2.46	-6.52	-21.62	7.05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6	17	18	19	20
美> 3월 소매판매 추정 MoM (0.6%, 0.4%, -0.1%) 美> 기업실적: Netflix, Goldman Sachs, Johnson&Johnson 3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319, 1267, 1236) 3월 광공업생산 MoM (0.5%, 0.3%, 1.0%) 유럽> 4월 ZEW 서베이 예상 (1.9, n/a, 13.4) 中> 1Q GDP YoY (6.8%, 6.8%, 6.8%)	美> 기업실적: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엔지니어링, POSCO, LG생활건강, 고려아연 美> 기업실적: Alphabet, Verizon, Caterpillar, Lockheed Martin 3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625, 618)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n/a, 126.0, 127.7)	美> 연준 베이저북 공개 기업실적: Morgan Stanley, Ebay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9%, n/a, -1.9%) 유럽> 3월 CPI YoY (1.3%, 1.4%, 1.1%) 韓> 기업실적: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S-Oil 美> 기업실적: Qualcomm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4.9%) 日> 2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n/a, 0.5%, -1.8%)	韓> 기업실적: KB금융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32, 230, 233) 3월 선행지수 (0.3%, 0.3%, 0.7%) 韓> 기업실적: 현대차, 삼성전기, 대림산업, 기업은행, 현대제철, NAVER, 현대모비스, 만도 1Q GDP SA YoY (n/a, n/a, 2.8%) 美> 기업실적: Visa, Facebook, Amazon, GM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32) 3월 도매재고 MoM (n/a, n/a, 1.0%) 3월 내구재주문 MoM (n/a, 1.1%, 3.0%)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 -0.4%)	韓> 기업실적: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유럽> 4월 소비자기대지수 (n/a, -0.1, 0.1) 日> 3월 CPI YoY (1.1%, 1.1%, 1.5%) 2월 3차 산업 지수 MoM (0.0%, 0.2%, -0.4%) 韓> 기업실적: 기아차, 현대건설, CJ E&M, 삼성중공업 美> 기업실적: Intel, Exxon Mobile, Microsoft 1Q GDP 연간화 QoQ (n/a, 2.1%, 2.9%)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98.0, 97.8) 유럽> 4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n/a) 日> BOJ 통화정책회의 (n/a, n/a, -0.1%) 3월 유효구인배율 (n/a, 1.59, 1.58)
23	24	25	26	27
美>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55.0, 55.6) 유럽>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56.0, 56.6) 日> 4월 닛케이 제조업 PMI (n/a, n/a, 53.1)	韓> 기업실적: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엔지니어링, POSCO, LG생활건강, 고려아연 美> 기업실적: Alphabet, Verizon, Caterpillar, Lockheed Martin 3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625, 618)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n/a, 126.0, 127.7)	韓> 기업실적: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하나투어 4월 CPI YoY (n/a, n/a, 1.1%) 美> 기업실적: Apple, Mastercard 연준 FOMC 금리결정 (n/a, 1.75%, 1.75%)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유럽> 4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n/a) 1Q GDP SA YoY (n/a, n/a, 2.7%) 中> 4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n/a, 51.0)	韓> 기업실적: 현대중공업, KT 美> 기업실적: Tesla, DowDupont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3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56.2, -57.6) 3월 제조업수주 (n/a, n/a, 1.2%)	韓> 기업실적: SK텔레콤, LG유플러스 美> 4월 비농업고용자수변동(천건) (n/a, 185, 103) 4월 실업률 (n/a, 4.0%, 4.1%)
30	1	2	3	4
韓> 기업실적: LG화학, 풍산, 송원산업 美> 기업실적: McDonalds 3월 개인소득 (n/a, 0.4%, 0.4%) 유럽> 3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4.2%) 中> 4월 제조업 PMI (n/a, n/a, 51.5)	韓> 4월 수출 YoY (n/a, n/a, 6.1%) 美> 기업실적: Pfizer, Under Armour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n/a)	韓> 기업실적: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하나투어 4월 CPI YoY (n/a, n/a, 1.1%) 美> 기업실적: Apple, Mastercard 연준 FOMC 금리결정 (n/a, 1.75%, 1.75%)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유럽> 4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n/a) 1Q GDP SA YoY (n/a, n/a, 2.7%) 中> 4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n/a, 51.0)	韓> 기업실적: 현대중공업, KT 美> 기업실적: Tesla, DowDupont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3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56.2, -57.6) 3월 제조업수주 (n/a, n/a, 1.2%)	韓> 기업실적: SK텔레콤, LG유플러스 美> 4월 비농업고용자수변동(천건) (n/a, 185, 103) 4월 실업률 (n/a, 4.0%, 4.1%)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일)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